



신축년 새해맞이 특집!

소가 들어간 지명이
이렇게 많았다니!

2021년! 소의 해가 왔어요~음메~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



국토교통부
국토지리정보원

우리 민족과 친숙한 동물인 **소!**
그만큼 우리 국토에는 **소**와
관련된 **지명**이 많은데요.



소가 들어간 지명은 총 731개로
용, 말에 이어 **세번째**로 많으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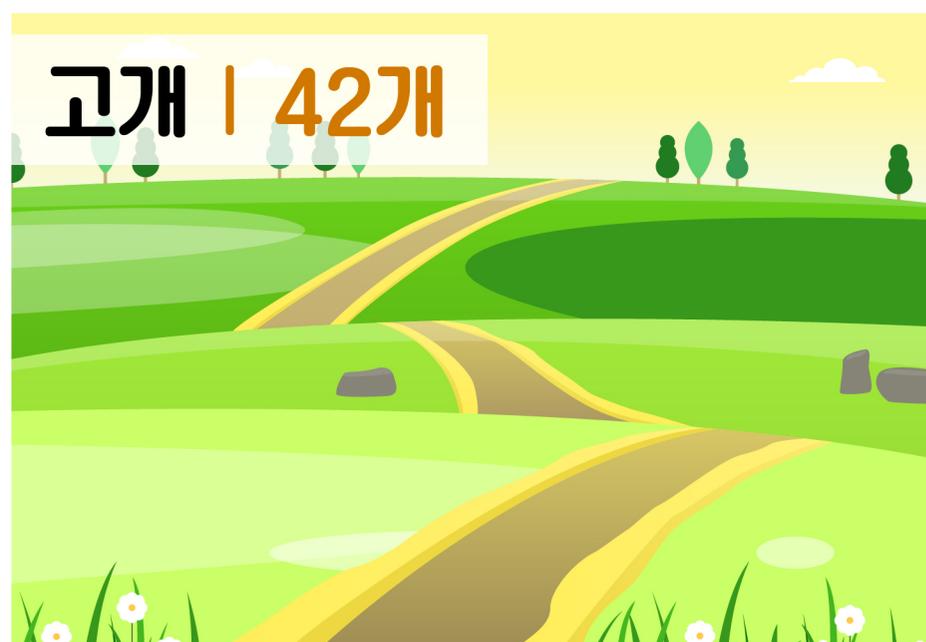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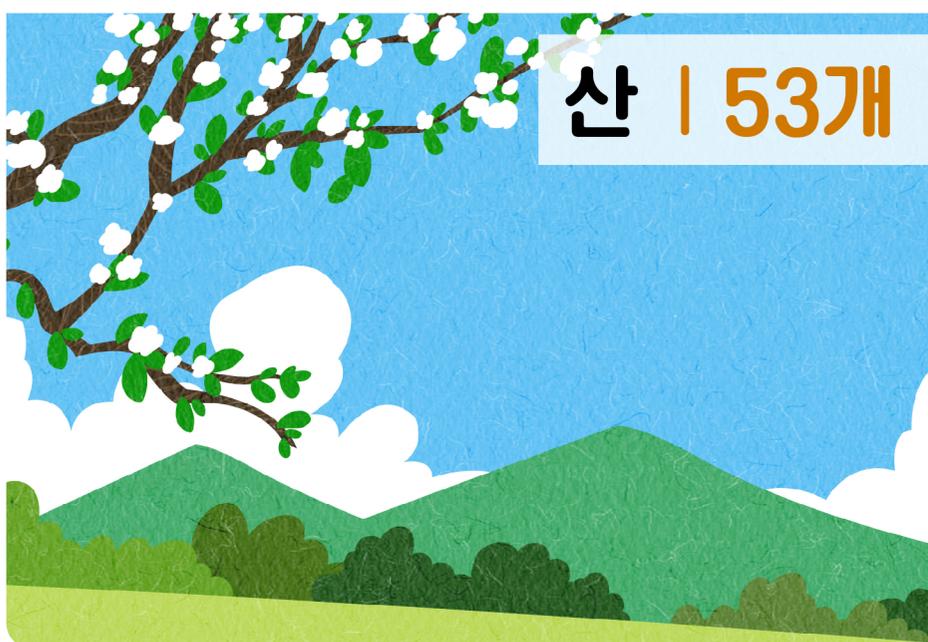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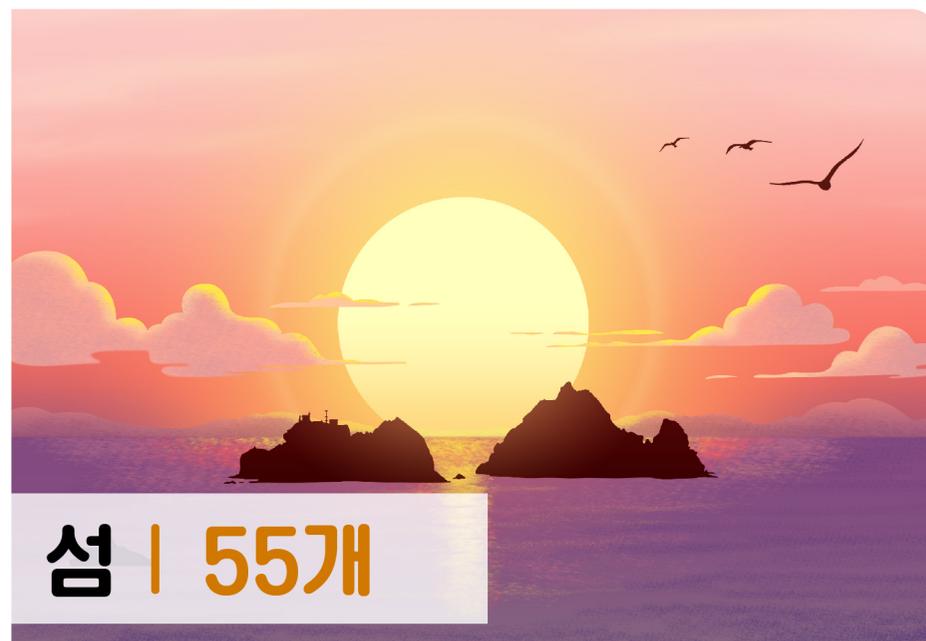
1위 용
1,261 개

2위 말
744 개

3위 소
731 개



대부분 마을이름(566개, 77.4%)으로 사용되고 있으며
섬, 산, 고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

소는 농사일을 돕는 중요한 가축으로, 부와 재물의 상징으로 여겼던
우리 민족의 문화가 지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!



그럼 지금부터 소가 들어간 재미있는 지명들을 살펴볼까요?

“소를 데리고 넘지 마라” 우금고개



옛날, 충남 공주의 우금고개에는 소도둑이 많이 나타나,
해가 저물면 소와 함께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에서
우금고개가 되었다고 합니다.

“ 소 멩에를
닭은 마을 ”
멍에실



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한 **멍에실**은
마을의 모습이 **소의 멩에**를 닮은데서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.

“소의 은혜” 우혜 (牛惠) 마을”



경남 거창군의 우혜마을은 소가 아이를 해치려는 맹수를 죽이고
아이를 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.

소의 헌신을 기리는 뜻에서 **우혜마을**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

“소들이 똥을 많이 싸 고개”

소똥령



강원도 고성군의 소똥령은 고개를 넘어 장으로 팔려가던
소들이 고개 정상에 있는 주막 앞에 **똥을 많이 누어**
산이 소 똥 모양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.

국토지리정보원은
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든 지명을 보다
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

국토교통부
국토지리정보원

